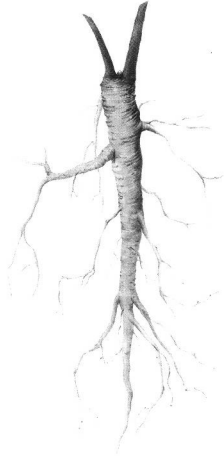




도라지



생약명은 길경이며 작물명은 도라지로 주로 뿌리를 이용한다. 주요 효능은 가래해소, 혈압 강하(血壓降下), 혈당강하(血糖降下)이다.



안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뇌두부패 피해 ●●●

2년근 이상의 도라지를 생산하기 위해 뿌리를 포장에서 월동시켰을 때 물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서 발생한다. 봄철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는 식물체가 연하여 새순이 나오는 뇌두부위가 상하기 쉽다. 푸사리움 등 토양에 서식하는 균이 상처부위로 침입하여 썩게 만드는데 심하면 뿌리전체가 썩게 된다. 늦가을 지상부 낙엽이 지면 비닐이나 볏짚으로 덮어서 급격한 온도차에 의한 뿌리의 물리적 손상을 억제하여도 양병원균에 의한 2차적 뇌두부패의 피해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점무늬병 피해 ●●●

잎에 발생하며 처음에는 원형의 회백색 반점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흑갈색의 원형 또는 불규칙한 병반이 형성된다. 포자는 공기에 의해 전파가 되며 토양에 질소 함량이 많으면 지상부 생육은 왕성하나 연약하게 성장하여, 병원균 침입이 용이해지며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병이 심하다. 발병 초기에 도라지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며 전년도에 이병된 식물체의 잔재를 제거하여 월동한 병원균 포자에 의해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흰가루병 피해●●●

주로 잎에 발생하는데 심해지면 잎자루, 줄기까지 발생이 확대되며 잎의 표면에 흰가루 형태의 병징으로 나타난다. 주로 장마기에 전염이 되며, 장마 후 온도가 높고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발병을 보인다. 피해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기상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발병초기에 병든 잎이나 식물체 전체를 조기에 제거하여 병발생이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응애류 피해●●●

잎에 발생하며 점박이응애와 차응애가 피해를 준다. 년중 발생하나 2년생 이상의 다년근을 재배시에 해마다 발생하는 밀도가 증가되어 점점 더 큰 피해를 준다. 초기 병징은 중앙 엽맥을 따라 황색의 탈색무늬가 생기며 심한 경우 잎전체가 고사하기도 하는데 점무늬병과 함께 발생하면 그 피해가 더 심해진다. 잎 뒷면에 응애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배설물, 거미줄 같은 것이 생겨 지저분하게 보인다. 발생이 가장 심한 때는 여름철 고온건조한 시기이며 잎 뒷면에 1~2마리 발생시 등록된 농약으로 즉시 방제해야 한다. 초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등록된 여러 종류의 농약을 교대로 사용하여 약제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막도록 한다.



선충 피해●●●

도라지에 기생하여 피해를 주는 선충에는 뿌리썩이선충, 뿌리혹선충 등이 있다. 뿌리의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저해되어 생장이 부진해지며 수많은 혹과 잔뿌리의 발생한다. 가급적 사질토에서의 재배를 피하며 유기물을 충분히 사용하고 선충류의 피해가 있었던 작약, 지황, 마, 인삼, 당귀, 독활, 하수오, 백지, 맥문동, 구기자, 천궁, 황기, 복분자말기, 더덕 등의 포장과 당해 년도 피해가 컸던 포장에서는 연작을 피하고 선충이 기주로 하지 않는 작물을 재배한다. 휴경하면서 심경을 해주면 표토층의 선충 밀도가 감소되어 추후 도라지 재배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